

수익률 아닌 리스크 관리가 대체투자의 핵심



“대체투자도 리스크 관리가 핵심이다.”
13일 매일경제신문과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가 공동으로 서울 호텔신라에서 개최한 ‘글로벌 대체투자 콘퍼런스(GAI 2014)’에 참석한 기관투자자들이 공통으로 밝힌 견해다.

에이드리언 라이더 호주 퀸즐랜드투자공사(QIC) 최고투자책임자(CIO)는 “투자 자산 규모가 늘면서 운용전략도 종전 자산 기반 포트폴리오에서 리스크 기반 포트폴리오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투자 결정방식이 ‘어떤 자산’에 투자할 것이냐가 아닌 ‘어떤 위험’에 투자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QIC는 1991년 출범 당시에는 대체투자 포트폴리오 관리에서 자산운용에 집중해왔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부터 대체투자 핵심 요소로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맞춘 포트폴리오 관리방식을 택했다.

설립 이후 줄곧 부동산 등 대체투자에 관심을 가져온 QIC는 운용자산 규모가 770억 호주달러(약 74조원)에 달하는 호주 최대 국부펀드 중 하나다.

대체투자에 대한 리스크 관리 위주 접근법은 해외에서 대세로 자리 잡았다. 앤드루 매카페리 에버딘자산운용 대체투자 글로벌 헤드는 “대체투자에 대한 접근법이 리스크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며 “더 이상 부동산·PE·헤지펀드 등 투자방식에 따른 기능적 분류를 하지 않고 유동성과 투자 위험을 기준으로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글로벌 추세에 발맞춰 최근 국내외 대체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국민연금 등 국내 연기금도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최광 국민연금 이사장은 이날 콘퍼런스에서 “대체투자 규모가 크게 증가한 국민연금이 리스크 관리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리스크 관리 부서에 보다 많은 권한을 부여해 급변하는 투자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글로벌 대체투자 콘퍼런스(GAI 2014) ‘대체투자의 현재와 미래’ 세션에서 국내외 투자전문가들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앤드루 매카페리 에버딘자산운용 대체투자 대표, 양영익 국민연금공판 해외대체투자실장, 김진우 군인공제회 대체투자본부장, 니콜라 칼라일그로 전무. <김효영 기자>

호주 국부펀드 QIC “어떤 위험에 투자할까 고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직접 투자위험 관리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리스크관리실을 기금운용본부장(CIO) 직속의 리스크관리센터로 확대 재편하고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국민연금의 대체투자 규모는 2008년 8조 8000억원으로 전체 자산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7%에 그쳤으나 지난해 40조3000억원(9.4%)으로 크게 증가했다.

최 이사장은 “향후 5년 내 대체투자 비중을 12%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 셈이다.

김진우 군인공제회 대체투자본부장은 “리스크를 분산해 안정적인 수익률을 달성하는 것이 운용전략의 핵심”이라며 “대형일 위주의 틀에서 벗어나 200억~300억원 규모 중소형 투자를 늘리고 해외 투자 비중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내 기관투자자들은 선진 기관투자

자들의 대체투자 유동성 관리 노하우를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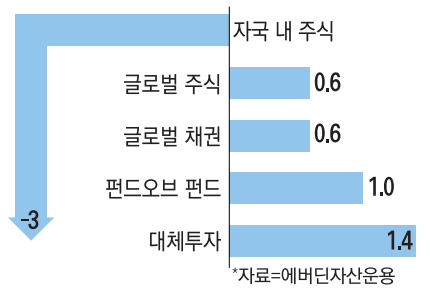
예컨대 회수기간이 긴 에너지산업에 투자할 경우 장기간 유동성이 해당 투자에 묶인 다. 유사시 현금이 필요할 경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시장 유동성이 높은 에너지 신용상품에도 자산을 배분해 유동성을 보완하는 식이다.

김 본부장은 “대체투자 포트폴리오 전체의 위험을 다스리기 위해 투자 지역·섹터·금액을 다변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운용사와 기관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 모니터링 중요성에 대해서도 입을 모았다. 같은 투자 조건에서도 모니터링 유무에 따라 투자 성과가 갈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추홍식 한국투자공사(KIC) 투자운용본부장(CIO)은 “대체투자는 자산별 리스

글로벌 자본시장의 자금 이동 전망 (2017년까지) (단위=조달러)



크·리턴(Risk·Return) 전략을 따르고 있어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하면 높은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다”며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초과수익을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2000년대 초반부터 중장기 과제 투자 포트폴리오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며 “최근 직원 1인당 투자금액이 늘어나면서 간접투자·아웃소싱 비중을 점차 늘리고 있는 추세다”라고 말했다.

기획취재팀

▶레이더M(RaytheM.kr) 보도

글로벌 큰손 투자자 日·中 PE시장 눈독

아시아 투자 매력도



존 에하라 회장 데니스 체 대표

‘글로벌 큰손’들이 일제히 일본 PE시장에 주목하고 있다. ‘잃어버린 20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동일본 대지진까지 겹치는 등 대내외적으로 역대 최악 여건 속에서도 PE가 늘어난 성장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일본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이들은 최근 인수·합병(M&A)이 활발한 중국 PE시장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존 에하라 유니스캐피탈 회장은 13일 ‘글로벌 대체투자 콘퍼런스 2014’에서 “일본 PE 딜 중 일부는 투자자금 회수율이 원금 대비 5~6배에 달했고 심지어 8배에 달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수익성이 좋다고 보니 일본 PE시장으로 자금이 저절로 모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에하라 회장은 아시아인 최초로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파트너에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로 아시아 최초로 PE 유니스캐피탈을 창립했다.

그는 일본에서 PE로 성공하기 위한 열쇠는 경영권 확보라고 거듭 강조했다. 단순 지분 투자를 통해 소액주주가 되는 것보다 대주주 지위를 갖고 기업 내 비효율성을 타파하는 것이 ‘+α’ 창출을 위한 핵심이라는 것이다.

에하라 회장은 비효율성이 아말로 PE의 친구라고 이야기한다. 시장 변동성을 이용해 돈을 버는 트레이더들이 ‘변동성은 우리 친구’라고 말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日 잃어버린 20년 불구 원금대비 최고 8배 대박 중국 활발한 M&A 매력

특히드마틴기금운용에서 PE를 총괄하는 데니스 체 아시아 대표도 일본 기업 투자에 긍정적이다.

체 대표는 “기업가 정신이 투철한 일본 기업에 투자했을 때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이 거시경제 측면에서 저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개별 기업은 이러한 저성장과 무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대형 정보기술(IT) 기업에 대한 M&A가 활발한 중국을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체 대표는 “중국은 전통적인 제조업 외에 IT 부문 실적이 눈부시다”면서 “중국 벤처 기업을 오랫동안 주시해왔다”고 말했다. 뛰어난 IT 부문 실적을 바탕으로 중국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중국 PE 투자의 장점으로 IT 부문 실적이 뛰어난 것 외에 투자 회수 방법이 다양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사모대출펀드’ 뜬다 美·유럽 우량기업 M&A자금 대출 중위험 중수의 상품으로 자리매김

새로운 사모투자 트렌드는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모대출펀드는 어려운 금융시장 환경 속에서 투자자들 고민을 풀어주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외국 우량 기업에 투자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모대출펀드(Private Debt Fund·PDF)가 국내 기관투자자들에게 새로운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다.

13일 매일경제신문이 개최한 ‘글로벌 대

체투자 콘퍼런스(GAI 2014)’에 참석한 주요 기관투자자들은 외국 우량 기업에 안정적인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사모대출펀드 시장을 주목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PDF는 운용사가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돈을 모아 인수·합병(M&A)이나 경영 활동 관련 자금이 필요한 우량 기업에 대출해주는 펀드를 말한다. 우량 기업 선순환 대출채권(시니어론)에 투자하는 펀드로 채권보다 후순위인 지분에 투자하는 PEF

(Private Equity Fund)와 대비된다.

레네 비너 파트너스그룹 사모금융대표는 이날 ‘새로운 사모투자 트렌드(New Trend of Private Investment)’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유럽과 미국 우량 기업 시니어론 등에 투자하는 PDF는 새로운 투자 기회 찾기에 고심 중인 투자자들에게 최적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계속된 저금리 기조에 따른 투자처 발굴에 대한 부담과 리스크 관리에 대한 고민마저 안고 있는 국내 기관투자자들로서는 대



레네 비너 대표

안으로 삼을 만하다는 것이다.

특히 유럽 금융회사 대출 여력이 새로운 은행의 건전성 기준 ‘바젤 III’ 시행 여파로 줄어들면서 유럽계 기업들은 대출에 목말라 있다. 이에 따라 PDF가 새로운 투자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한국 시장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면서 국내에서도 PDF에 대한 관심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한 국내 기관투자자는 “리스크 관리가 강화되는 상황 속에 PDF는 외국 우량 자산에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부동산·자산관리 최고경영자과정 33기

dongguk UNIVERSITY | 행정대학원 · REACEO

富를 창출하고 가치를 創造하는 동국대학교 부동산·자산관리 최고경영자과정!

효율적인 투자전략과 자산가치 상승 및
부동산 미래가치 창출에 관한 노하우를 전수합니다.

동국대학교 부동산·자산관리 최고경영자과정 33기

▶ 교육구성

구분	내용
교육기간	2014. 5월~9월
교육장소	동국대학교 사회과학관
교육시간	매주 화요일 18:30~21:30 1일 1~2강좌
교육내용	자산의 운용 및 관리 / 부동산의 개발 및 금융 / 투자 및 사례연구 등

▶ 원서접수

구분	내용
원서접수	2014. 5.20(화)까지 선착순 접수
서류	입학지원서, 사진
접수방법	홈페이지 : http://www.dgureceo.com FAX : 02.2263.8576 이메일 : ogongyk@dongguk.edu 우편 : (우100-715) 서울시 중구 필동로1길 30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과학관 516호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자산관리 최고경영자과정
TEL. 02.2260.8572 / 02.2260.8574 http://www.dgureceo.com